

조수미 갈라콘서트 성료

광주방문의 해·호남예술제70년 기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응원 메시지 한국 한국 끝날때마다 환호와 박수 "광주 시민들 기쁨과 행복 가득하길"



소프라노 조수미가 테너 장주훈과 협력하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음이 무대를 가르자 공연장은 단숨에 숨을 멈췄다. 청아한 고음이 대극장을 가득 채우자 곳곳에서 "조수미는 역시 조수미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조수미 갈라콘서트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이 열렸다. 강화주식회사가 주최하고 광주일보사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맞은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호남예술제 70년의 역사를 함께 기념하며 예향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연 시작 2시간여전부터 전당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무대를 눈앞에서 본다는 기대감에 관객들은 사진을 남기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는 최영선 지휘자가 이끄는 55인조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막을 열었다.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미라' 서곡이 힘차게 울려 퍼지며 거장의 무대를 예고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조수미는 단연 '여왕'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니체티 오페라 '연대의 딸' 중 '모두가 알아요'를 불러 상큼한 인사를 건네듯 무대를 열었고, 특유의 여유로운 제스처와 박수 유도로 객석을 자연스럽게 몰입시켰다. "여기서 저기서 나만 찾네"는 대목은 마치 조수미 자신을 소개하는 듯했다.

이어진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나의 온 마음은 당신 것이오'에서는 감성적인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져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일부 관객들은 입을 틀어막거나 소름이 돋은 듯 팔을 문지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오페라 아리아뿐 아니라 가곡과 영화·드라마 OST까지 폭넓은 레퍼토리가 이어졌다. 윤확중의 가곡 '마중'에서는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가 빛어낸 서정적 울림이 돋보였다. "사는 게 하무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라는 구절은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듯했다.

협연 무대도 빛났다. JTBC '팬텀싱어'로 주목받은 테너 장주훈은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아' 등을 통해 호소력 짙은 무대를 꾸몄다. 특히 조수미와 이중창으로 선보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는 절절한 감성과 극적인 연기로 객석을 압도했다.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한 무대에 관객들은 팔을 높이 치켜들며 열정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해금 연주자 이세미와의 협연도 이어졌다. 그는 조수미와 함께 드라마 커플삼입곡 '민들레야', 도종환의 시에 박지훈이 곡을 붙인 '흔들리며 피는 꽃'을 들려줬다. 애잔하게 울려 퍼지는 현의 떨림 위로 조수미의 청아한 음성이 겹치자 마치 한 편의 시가 노래가 되는 듯한 감동이 객석을 감쌌다.

관객들은 매 곡이 끝날 때마다 열띤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어떤 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믿을 수가 없다"고 감탄했고, "나이를 잊게 하는 무대였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부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한 학생은 "세계적인 성악가의 무대를 눈앞에서 만난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조수미는 애틋 무대로 세 곡을 더 선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 '라데츠키 행진곡'에서는 객석과 함께 손뼉을 치며 호응해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는 축제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광주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왔으니까요"라며 농담을 던진 뒤 "올해가 광주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광주와 함께하고,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Sumi Jo

광주에 울려 퍼진 신이 내린 목소리 세계의 빛이 되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난 16일 오후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갈라 콘서트 '광주, 세계의 빛이 되길' 공연에서 해금 연주자 이세미씨와 협력하며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줬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원근 레코드'

서로 다르게 인식되는 시간과 기억

최지선의 개인전 '원근 레코드' 24일까지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실크스크린보다 간결한 디지털 판화방식을 일컬어 리소인쇄라고 한다. 공판화 기법을 적용해, 인크가 종이에 균일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개 이상의 인크가 겹치며 예상하지 못한 색채를 발현한다.

이 같은 방식은 시간과 기억의 교차를 감성적으로 구현하게 한다.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시간과 기억은 자기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투영된다.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최지선의 개인전은 기억과 시간의 감각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원근 레코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결과물을 기억과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다.

최 작가는 스마트폰 사진첩을 예로 들며 "여기에는 촬영한 사진 외에도 음악의 스크린 캡처, 다양한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나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을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작가는 시간과 기억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인 시간, 주관적이며 내면적인 기억의 풍경이 어떻게 매체를 통해 다변화되는지 보여준다.

한편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장차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두드림이 빚어낸 흥과 신명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20일 '모두의 연희: We 打' 공연

전통연희는 함께 어울려 흥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풀어내던 공동체의 예술이다. 북과 장단이 울리던 관객은 어느새 호흡을 맞추며 무대의 일부가 된다.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이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에서 '모두의 연희: We 打(위타)'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광주 문화재단 토요상설공연으로, 전통연희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어 예인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자타공인'은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통해 무대를 새롭게 풀어내는 연희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젊은 연희자들의 열정이 더해져 전통과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GB토크' 20일 큐레이터 박수지 강연

'국가는 예술을 어떻게 규정하나'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오는 20일 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선보이는 강연 프로그램 'GB토크'의 주요 주제다.

강연에는 기획자 플랫폼 웨스의 공동 운영이자자 독립 큐레이터인 박수지가 나서 국가와 예술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국가가 예술을 규정하는 방식, 새로운 국가성 등을 모티브로 생각을 나눈다. 대화이



자타공인의 지난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무대 위에는 '한국판 서커스'라 불리는 기예가 펼쳐진다. 버나들리기, 죽방울놀이, 용기놀이 같은 묘기가 흥겨운 장단과 어우러지고, 사물판굿과 채상장구, 채상소고가 더해져 신명의 에너지가 살아난다. 재담과 노래가 곁들여지면서 마당극 같은 흥겨움이 이어지고, 마지막 순서인 '강강술래 대동마당'에서는 출연진과 관객이 손을 잡고 함께 어우

며 축제를 완성한다. 한편 토요상설공연은 전통문화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기 체험, 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유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후에는 서다솜 작가의 예술적 행위로서의 돌봄과 환대를 모색할 수 있는 큐레이팅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GB토크는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기록으로서의 사진', '다극화 시대의 예술과 큐레이팅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9월 GB토크는 각각 '연대', '다중의 정동', '국가'를 키워드로 삼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 비엔날레에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최빛

나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먼저 10일 독립서점 이것은 서점이 아니라에서는 청년활동가이자 농업인 김후주와 사진작가 황예지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가 비상사태와 '남태령 대첩'을 중심으로 기록으로서의 사진을 조명하고 시민 연대가 갖는 의미 광장이 환기하는 힘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